

## 가계저축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Family Saving Patterns and the Determinants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 梁 世 貞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Lecturer : Se-Jeong, Yang*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朱 仁 淑

*Major in Home Management,*

*Korea University*

*Ju-Sook, Ju*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운동행태에 따라 가계저축유형을 분류하며, 또한 각 저축유형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가계저축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가계저축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을 찾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가계저축은 상이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은 그에 해당하는 가계저축행태의 특징에 근거하여 수익추구형, 안전지향형, 지역밀착형, 인간관계중시형 및 유비무환형으로 명명하였다. 가계저축유형별 결정요인은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가계소득,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학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I. 서 론

가정재정자원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가정이 소유하고 있는 제한된 재정자원을 그 구성원의 요구가 가장 잘 충족되도록 사용하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가정경제를 운영하고자 할 때 가정이 가지는 경제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소비를 행함으로써 가족원에게 보다 안락한 현재의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저축행위는 현재의 소비요구와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행위 사이의 균형적 관리행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Hefferan, 1982).

가계저축의 목적은 미래의 재정적 목표를 실현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관리자는 저축하는 과정 그 자체로써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일종의 조절감을 가질 수 있다. 가계저축은 이러한 가정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국민경제의 생산능력향상은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계저축은 이러한 투자행위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가계저축관련연구들은 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가계저축의 결정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가정경제 영역에서도 몇몇 연구가 있기는 하였으나 조사대상이 특정지역에 국한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었으며, 연구대상이 총가계저축액 또는 저축률 등 저축규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가계의 저축행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가계저축의 운용행태를 통한 가계저축유형을 분류하고 나아가 가계저축유형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저축행태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 유형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 2) 분류된 가계저축유형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계저축의 개념

가계수입을 사용용도에 따라 크게 소비와 저축,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때, 저축이란 소득 중에서 소비를 위해 쓰여진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득」과 「소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축은 그 개념과 측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efferan은 그의 연구에서 세가지의 서로 다른 저축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1979, 1982). 그가 사용한 저축의 정의로는 ① 일정기간동안 가계유동자산의 증가분, ② 일정기간동안 실질 純자산의 증가분,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로 ③ 가계의 전체 純투자를 지칭하였다. 이때 가계의 유동자산이란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폐의 축적, 예금, 신탁, 보험, 유가증권등을 의미한다. 純자산의 증가분을 저축으로 볼 경우에는 이러한 가계의 금융자산에 내구재를 포함한 기타의 모든 자산 및 가계부채구조까지를 고려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가계의 전체 純투자를 저축으로 정의할 경우는 가계 純자산의 변화에 연금지불비, 보험료, 인적자원에 투자되는 교육비나 서적비등까지를 포함하였다.

우리나라의 가계저축행태를 논의함에 있어 契, 私債등과 같은 私금융저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 80년대 초반 하더라도 가계저축의 절반 이상이 私금융 형태였으며, 최근 들어 제도금융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기는 하나 가계저축에서 차지하는 私금융의 비중은 90년대에 들어서도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은행, 1992).

따라서 넓은 의미로 정의해 볼 때 가계저축은 현금의 보유, 금융기관에의 예금, 투자, 契, 私債와 함께 부채의 상환비나 보험료지불등과 같은 강제저축, 주택구입, 부동산투자, 가사내구재구입비, 그리고 인적자본에 투자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가계저축은 일반적으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국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가계저축개념에 근거하여 가계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투자한 모든 금액과 契불입금액, 私債준 금액을 포함하는 가계의 모든 금융자산을 가계저축으로 정의하였으며, 가계의 금융자산운용행태에 따른 가계의 저축유형을 분류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총보유액을 사용하였다.

### 2. 가계저축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가계저축에 관한 연구는 70년대 중반이후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다수의 연구가 외환경제적 요인과 가계저축과의 관계를 규명한 시계열분석을 행하였던데 반해, 가계저축행태와 개별가계속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횡단자료에 근거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횡단자료를 이용한 가계저축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명훈(1985)은 1982년도 도시근로자가계의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한계저축성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한계저축성향은 가구원수, 가구주의 연령, 입주형태 및 저축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저축성향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며, 가구주의 연령이 45세 미만인 경우가 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입주형태별로는 전세가계, 월세가계, 自家의 순으로 한계저축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부문에 가입하고 있는 가계의 한계저축성

향이 더 높았다.

이계식(1986)은 1984년도 국민은행의 가계금융 이용실태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부채잔고가 많을수록 가계저축잔고는 많았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계저축잔고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가계의 저축액이 여타의 목적으로 저축하는 가계에 비해 약 2.3배가 많았으며, 도시의 규모와 가계저축 규모와는 역의 관계를 보였다.

위의 두 연구가 전국가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계저축 규모의 결정요인 규명에 중점을 두었다면, 아래 연구들은 특정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하되 보다 세부적인 가계저축행태를 연구하였다.

채정숙(1980)은 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주부들의 저축에 대한 의식 및 저축행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가구의 과반수 이상이 소득의 30% 이내에서 저축을 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소득의 11~20%를 저축하고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았다.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저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의 목적으로는 자녀의 교육비, 자녀의 결혼준비, 주택마련, 그리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등의 순서였고, 저축수단으로서는 계와 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조희금(1984)도 역시 대구시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의 저축형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가계의 평균 저축율은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단계인 형성기의 평균 저축율이 가장 높았다. 가계저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활주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인 가정생활주기 I, II단계에서는 주택마련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결혼자금형성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저축의 목적은 이용하는 저축종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가정

생활주기와 저축종류의 선택과의 관련여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저축종류와 선택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契, 私債등 私금융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선택했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금융기관에 금예의 선택은 안전성, 편의성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혜임과 한상순(1986)은 저축상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도를 조사하면서 저축수단별 이용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8%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私금융 이용도가 높았으며, 특히 고연령 가구의 계이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전문직종사자 가구, 고소득 가구, 고학력가구 등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저축수단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수익성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가계저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으로 소득과 자산, 가정생활주기(연령), 교육수준, 직업, 주거형태, 가구원수, 주요 저축목적 등을 들 수 있겠다.

### III. 연구방법

#### 1. 자 료

본 연구를 위하여 국민은행의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의 기초자료가 사용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40개 도시 200개 지역의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가계의 금융자산 및 부채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原자료의 조사대상은 3,000가구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주 연령이 20세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가 1인인 가구 및 저축액이 없어 저축항목별 구성비를 산출할 수 없는 가구를 제외하고 2,801가구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 2. 분석방법 및 변수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먼저 가계저축운용행태에 따라 저축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다음 단계에서 분류된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 가계저축유형분류 : 군집분석

가계저축유형의 분류를 위하여 군집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군집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묶임계수(fusion coefficient)와 나무그림(dendrogram)이 사용되었다. 군집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8개 저축항목(은행 자유저축, 은행 목돈마련저축, 은행 신탁저축, 非은행 확정금리부저축, 非은행 변동금리부저축, 유가증권, 私債, 契) 각각의 저축액의 가계 총저축보유액에 대한 구성비가 사용되었다. 각 저축항목의 구체적 정의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가계저축유형의 결정요인 분석 : 로짓분석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유형의 결정요인을 판별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짓분석은 특정가계저축유형의 소속여부의 경우처럼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 일반적 회귀분석에 비해 신뢰도가 높으며, 또한 가변수형태의 독립변수를 사용할 경우 유사기법인 판별분석에 비해 통계적 신뢰도가 높다.

가계저축행태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소득, 가구주의 나이, 교육정도, 직업, 주거형태, 가구원수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주요 결정요인으로 논의된 바 있는 저축목적은 가구주의 나이 및 주거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변수의 차이에 따라 개별 가계가 특정 저축유형에 속할 확률을 산출함으로써 각 유형의 결정요인들이 규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로짓모델은 다음과 같다.

$$SH_i = \alpha_1 + \alpha_2 YH + \alpha_3 SIZE + \alpha_4 AGE_1 + \alpha_5 AGE_2 + \alpha_6 AGE_3 + \alpha_7 AGE_4 + \alpha_8 OCCU_1 + \alpha_9 OCCU_2 + \alpha_{10} OCCU_3 + \alpha_{11} OCCU_4 + \alpha_{12} ED_1 + \alpha_{13} ED_2 + \alpha_{14} HOUSE_1 + \alpha_{15} HOUSE_2$$

여기서  $SH_i = i$ 유형의 소속여부( $i$  유형 vs. 여타 유형);  $YH$ =가계소득;  $SIZE$ =가구원수;  $AGE_1 \sim$

$AGE_4$ =가구주 나이의 더미변수(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vs. 20대);  $OCCU_1 \sim OCCU_4$ =가구주 직업의 더미변수(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자영업자, 기타 vs. 봉급자);  $ED_1, ED_2$ =가구주 교육수준의 더미변수(중·고졸, 대졸이상 vs. 국졸이하);  $HOUSE_1, HOUSE_2$ =주거상태의 더미변수(전세, 월세 vs. 自家)를 나타낸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827,860원이었으며 평균 가구원수는 4.20명이었다.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41.85세였으며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봉급생활자였다. 또한 대부분의 가구주가 중·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대졸자는 24.74%이며, 54.84%가 自家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의 전체조사 대상의 평균치 참조).

2. 가계저축유형의 특징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가계저축유형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분류된 군집은 각 집단에 속한 가계의 저축행태의 특성에 근거하여 각기 「수익추구형」, 「안전지향형」, 「지역밀착형」, 「인간관계중시형」, 「유비무환형」으로 명칭하였다. 저축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1. 저축항목의 구체적 정의

저 축 항 목	구 체 적 정 의
은행 자유저축	보통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
은행 목돈마련저축	부금, 적금, 목돈마련저축
은행 신탁저축	은행신탁저축
非은행 확정금리부저축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非은행 변동금리부저축	투자신탁, 종합금융, 단자, 보험
유가증권 투자	주식, 채권
私 債	私債준 금액
契	契붙입 금액

표 2. 저축유형별 저축보유액의 구성분포

저 축 항 목	저 축 유 형					전 체
	I 수 익 추구형	II 안 전 지향형	III 지 역 밀착형	IV 인간관계 중시형	V 유 비 무환형	
가 구 수 (%)	615 (22.0)	774 (27.6)	282 (10.1)	367 (13.1)	763 (27.2)	2,801 (100.0)
저축보유액(원) (구성비: %)	10,989,080 (100.0)	6,132,750 (100.0)	5,025,550 (100.0)	4,974,200 (100.0)	5,669,060 (100.0)	6,809,850 (100.0)
은행 자유저축	(9.4)	(79.1)	(6.5)	(12.4)	(10.3)	(29.0)
은행 목돈마련저축	(7.7)	(6.6)	(3.7)	(6.5)	(75.2)	(25.2)
은행 신탁저축	(1.0)	(0.6)	(0.3)	(1.7)	(0.4)	(0.7)
非은행 확정금리부저축	(3.0)	(1.8)	(80.2)	(2.2)	(2.1)	(10.1)
非은행 변동금리부저축	(67.0)	(4.1)	(3.4)	(4.6)	(4.5)	(18.0)
유가증권 투자	(6.9)	(3.7)	(2.9)	(2.9)	(4.2)	(4.4)
私 債	(1.7)	(1.5)	(1.2)	(4.5)	(0.5)	(1.6)
契	(3.3)	(2.7)	(1.9)	(65.2)	(2.8)	(11.0)

표 3. 저축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징

저 축 항 목	저 축 유 형					전 체
	I 수 익 추구형	II 안 전 지향형	III 지 역 밀착형	IV 인간관계 중시형	V 유 비 무환형	
가계소득(원)	934,510	809,050	698,320	814,430	815,310	827,860
가구원수	4.31	4.15	4.15	4.06	4.25	4.20
가구주 나이	41.7	42.6	44.0	40.9	41.9	41.9
가구주 나이 : 29세이하	6.5	7.8	12.1	7.4	10.0	8.5
(%) 30-39세	40.3	37.1	25.2	44.1	39.1	38.1
40-49세	31.4	28.9	28.7	27.8	31.3	30.0
50-59세	17.6	18.9	23.1	16.9	15.9	17.9
60세이상	4.2	7.4	11.0	3.8	3.8	5.6
직업구분 : 봉급생활자	51.4	47.7	41.1	47.7	64.1	52.3
(%) 일용근로자	5.7	8.8	13.1	9.3	6.2	7.9
자유직업자	6.0	5.4	5.3	5.2	4.3	5.2
자영업자	33.8	34.0	35.1	36.8	24.3	31.8
기 타	3.1	4.1	5.3	1.1	1.2	2.8
교육정도 : 국 졸	7.3	10.1	18.8	9.5	7.5	9.6
(%) 중·고졸	65.4	62.0	69.9	71.4	65.4	65.7
대 졸	27.3	27.9	11.4	19.1	27.1	24.7
주거상태 : 自 家	55.6	57.1	59.2	52.9	51.3	54.8
(%) 전 세	31.4	28.8	23.1	28.9	36.0	30.8
월 세	13.0	14.1	17.7	18.3	12.7	14.4

### 1) 군집 I : 수익추구형

전체 2,801가구중 22.0%에 해당하는 615가구가 군집 I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신탁, 종합금융, 단자, 증권등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하기는 하나 실세금리에 근접하는 고수익상품에 추가저축의 67.0%를 예탁하고 있었다. 또한 고수익 고위험상품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비중도 타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수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집 I을 수익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수익추구형 가구의 평균저축보유액은 10,989,080원으로 전체 평균치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들은 타유형에 비해 30~40대 고학력집단의 비중이 크며 자유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934,510원으로 전체평균치인 827,860원보다 12.9% 높으며, 가구원수는 4.31명으로 저축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았다.

### 2) 군집 II : 안전지향형

군집 II는 보통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및 정기예금 등과 같은 은행자유저축에 추가저축의 79%를 예탁하는 집단으로 전체의 27.6%에 해당하는 774가구가 이에 속한다. 유동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은행의 자유저축상품의 특성상 이 군집의 속성은 안정성을 지향하는 보수적 성격을 지닌 집단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전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가구들은 50~60대 가구주가 전체의 26.2%로 노령층 비중이 높아 월평균소득이 낮은 수준임에도 축적된 저축보유액은 군집 I 다음으로 높은 6,132,750원이었다.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중·고졸의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주거상태별로는 비교적 自家거주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3) 군집 III : 지역밀착형

군집 III에 속한 가구들은 은행상품에 비해 거래의 편의성 및 안전성은 다소 떨어지나 한정된 지역내에서 이용이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은 신용

협동기구, 상호신호금고, 우체국 등 非은행 확정금리부 상품에 저축의 80.2%를 저축하는 집단으로서 전체 2,801가구 중 10.1%에 해당하는 282가구가 이에 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일반은행의 영업력이 미약한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교육수준이 낮은 노년층 및 대도시의 서민층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용협동기구나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등과 같이 지역밀착적인 영업방식에 따른 이용편리성이나 수익성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군집 III에 속한 가구의 저축행태를 지역밀착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 유형에 속한 가구들은 저축여력이 가장 부족한 집단으로서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냈다. 월평균가계소득은 698,32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가장 높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가장 낮았다. 또한 가구주 직업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13.1%로 5개 군집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自家소유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 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보유율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4) 군집 IV : 인간관계중시형

군집 IV는 高위험, 高수익 저축수단인 契, 私債 등의 私금융저축이 총저축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전체가구의 13.1%에 해당하는 367가구가 이 유형에 속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契 또는 私債의 특성상,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친목도모나 상호부조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간관계중시형이라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가계저축보유액은 4,974,2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의 월평균가계소득은 814,430원으로 다소 낮은 편이며 가구원수는 4.06명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전체의 44.1%를 차지하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36.8%로 5개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상공인들의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교육수

준은 중·고졸이 71.4%였으며 월세가구의 비중이 5개 집단중에서 가장 높은 18.3%였다.

### 5) 군집 V : 유비무환형

군집 V에 속한 가구들은 부금이나 적금, 목돈마련저축과 같이 미래의 자금소요에 대비하는 성격의 저축이 총 가계저축의 75.2%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유비무환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763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에 해당하였다. 여유자금 운영에 있어 수익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래 재정목표와의 관련하에 저축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수익·고위험성 저축형태인 私債나 신탁저축의 이용은 매우 낮았다.

이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으로는 봉급생활자가 전체의 64.1%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월평균가계소득은 815,310원으로 전체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졸이상의 비중이 높고 국졸이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별로 보면 전세의 비중이 5개 유형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은행목돈마련저축이 주로 주택구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가계저축유형의 결정요인

가계저축유형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4에 제시되어 있다. 가계저축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저축유형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수익추구형

수익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계소득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그밖에 가구원수, 가구주 나이 및 교육수준도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수익추구형 집단에 속할 확률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유자금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저축의 의미가 점차 재산증식을 꾀하기 위한 투자형태로 변화되어지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은 것도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수익추구형집단에 속할 확률이 20대에 비해 높았으며, 가구주가 대졸이상인 경우는 국졸이하인 가구에 비해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안전지향형

안전지향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계소득과 가구주의 직업 및 교육수준이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가계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가계소득의 향상과 함께 점차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계자금운영태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별로 보면 봉급생활자에 비해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두 집단의 소득이 불규칙함에 따라 여유자금운영이 유동성, 편의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대졸이상은 국졸이하에 비해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과는 완만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대졸가구의 경우 금융기관의 이용빈도가 높고 사회활동도 활발하여 유동성자금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 3) 지역밀착형

지역밀착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원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20대가구에 비해 3,40대가구에 속할 확률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직업별로 살펴보면 봉급생활자에 비해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이 유형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안전지향형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교육수준 정도와 명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액의 유동성자금의 활용수단으로 신용협동기구나 상호신용금고보다는 공신력이 보다 높은 은행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주거상태별로 보면 自家소유의 가구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방 중소도시의 높은 自家보유율과 관련이 있는

표 4. 저축유형별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 회귀계수(t-값)

변 수	저 축 유 형				
	I 수 익 추구형	II 안 전 지향형	III 지 역 밀착형	IV 인간관계 증시형	V 유 비 무환형
가계소득	0.002** (7.74)	-0.0001** (2.64)	-0.001** (9.04)	0.00004 (0.32)	-0.0000 (0.04)
가구원수	0.07** (3.14)	-0.04 (0.87)	0.004 (0.004)	-0.15** (8.12)	0.08** (4.07)
가구주 나이 : 30-39세	0.34** (3.22)	0.06 (0.14)	-0.86** (14.09)	0.39** (3.03)	-0.17 (1.08)
40-49세	0.27* (1.79)	0.06 (0.10)	-0.59** (6.22)	0.13 (0.29)	-0.02 (0.02)
50-59세	0.18 (0.64)	0.14 (0.56)	-0.33 (1.64)	0.18 (0.46)	-0.18 (0.94)
60세이상	-0.17 (0.32)	0.31 (1.56)	0.07 (0.05)	-0.23 (0.38)	-0.14 (0.25)
직업구분 : 일용근로자	-0.23 (1.22)	0.35** (4.31)	0.42** (3.50)	0.22 (1.03)	-0.57** (9.62)
자유직업자	0.12 (0.32)	0.23 (1.35)	0.38 (1.64)	0.09 (0.13)	-0.55** (6.91)
자영업자	0.09 (0.78)	0.28** (7.85)	0.29** (3.52)	0.24** (3.62)	-0.62** (35.58)
기 타	0.56** (3.37)	0.54** (4.04)	0.26 (0.53)	-0.85** (2.41)	-1.16** (9.23)
교육정도 : 중·고졸	0.02 (1.48)	0.03 (0.03)	-0.42** (5.02)	0.03 (0.02)	0.12 (0.52)
대 졸	0.28* (1.86)	0.37** (4.29)	-1.12** (17.68)	-0.36** (2.18)	0.19 (0.96)
주거상태 : 전 세	0.11 (1.01)	-0.13 (1.59)	-0.44** (6.79)	-0.23** (2.62)	0.34** (10.75)
월 세	0.003 (0.0003)	-0.09 (0.40)	-0.10 (0.29)	0.08 (0.21)	0.05 (0.15)
상 수 향	-2.32** (55.19)	-0.98** (13.15)	-0.79** (4.95)	-1.48** (16.63)	-1.17** (17.53)

\*P≤0.10, \*\*P≤0.05에서 통계적으로 有意

것으로 사료된다.

#### 4) 인간관계증시형

인간관계증시형은 가계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가구원수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가구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15%씩 낮아지는데, 이와 같이 가구원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부양책임이 증가하여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가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업 관계상 인간관계의 필요성이 크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금융기관에 비해 저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긴급한 자금의 융통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졸이상 가구가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은 국졸보다 36% 낮았는데, 이는 고학력자들이 불건전한 저축수단으로 인식되는 저금융의 이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상태별로는 自家가구에 비해 전세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적게 나타나 전세가구의 경우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수단으로 제도금융권의 부금이나 적금등의 대출관련상품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5) 유비무환형

유비무환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구원수나 직업, 주거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높았는데,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학비나 결혼자금 등 미래에 목돈을 지불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직업별로 보면 봉급생활자가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여타 직업생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봉급생활자의 미래 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성을 시사한다. 또한 전세가가 주택마련을 위한 부금이나 적금등의 저축상품을 선호함에 따라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가계저축수단의 이용행태에 근거하여 군집분석을 사용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저축을 5개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저축행태특성에 따라 수익추구형, 안전지향형, 지역밀착형, 인간관계중시형, 그리고 유비무환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한 이들 가계저축유형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가계저축유형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추구형」은 투자신탁, 종합금융, 단자, 증권 등 非확정 고수익상품에 저축보유액의 67.0%를

예탁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계층별로는 활발한 경제활동시기인 30, 40대가구가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향형」은 보통예금, 저축(자유저축)예금, 정기예금등과 같은 은행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저축수단의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우선으로 하는 유형이다.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며, 봉급생활자에 비해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가구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밀착형」은 신용협동기구나 상호신용금고, 우체국등 지역상 이용이 편리한 곳을 택하여 가계저축의 대부분을 예탁하는 저축유형이다.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주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으며, 봉급생활자에 비해 일용근로자가구가, 전세가구에 비해 自家소유가가구에 이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私債나 契를 주된 저축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간관계중시형」은 30대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 이에 속할 가능성이 보다 높았으며, 가구주가 대졸이거나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은 自家가구에 비해 낮았다.

「유비무환형」은 주로 은행의 목돈마련저축이나 부금, 적금등을 주저축수단으로 하는 집단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봉급생활자가구인 경우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自家가구에 비해 전세가가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가계저축구조는 그 유형별로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개별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재정적 필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여 저축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가계저축증대의 효과적

인 유인책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 나타난 「유비무환형」은 고학력자와 봉급생활자가 주류를 이룬다. 이는 미래의 재정적 필요를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가계저축을 형성할 수 있는 가계의 관리능력과 함께, 이러한 계획성있는 저축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예측가능한 미래소득의 흐름이란 면에서 그 특징이 해석될 수 있다. 저축이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개인의 재정적 복지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같은 유비무환형태의 저축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은 가계저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관리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가정의 가계저축행태가 이러한 「유비무환형」으로 유도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계저축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건전한 저축수단으로 인식되어온 私금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인간관계중시형」가구가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류의 자금을 제도금융권 안으로 흡수시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경제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가계에 있어서도 私債나 契가 지니고 있는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가계관리의 안정을 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들 유형에는 자영업자가구, 중간정도의 학력, 30대의 연령, 그리고 월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제도금융권 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원활할 대출을 위한 금융제도개편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가계의 저축행위를

충실히 이해하는데 자료상의 제한점이 있었다. 먼저 가계의 총자산이 원자료에서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가계의 경제자원으로 가계의 현재소득만을 고려하였으며, 가계저축유형에 주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생활주기도 가구주 연령을 사용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非은행 변동금리부 저축의 경우 보험과 기타 다른 저축형태(투자신탁, 종합금융, 단자회사)는 그 성격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나 원자료에서 주어진 저축형태의 범주이므로 부득이 함께 묶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1) 국민은행(1980-1992).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 2) 이계식(1986).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개발연구 8(4), 16-40.
- 3) 이명훈(1985).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8월호, 31-50.
- 4) 이해임·한상순(1986). 저축상품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19-136.
- 5)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분석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6.
- 6) 채정숙(1980). 주부들의 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 대구시 가구를 중심으로 -. 한사전문대 논문집 5, 62-86.
- 7) Hefferan, C.(1979). Saving behavior in multiple earner familie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177-178.
- 8) \_\_\_\_\_(1982). Determinants and patterns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1), 47-55.